

법원행시 초단기 합격을 위한 최적의 커리큘럼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을 위한 법학전문 강사진의 명강의

[www.hanlimgosi.co.kr](http://www.hanlimgosi.co.kr)

# HLS

2018년 법원행정고시 대비

**연간일정 및  
종합반 모집안내**

-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동시 모집 -

법학교육의 名家  
한림법학원이 제대로 시작합니다.

# 강사진



**김남훈 변호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민사법 전임
- (현) 법무법인 현무 파트너 변호사
- 사시 제47회 합격

**저서**

- Essential 민법(도서출판 월비스)
- Essential 민사소송법(도서출판 월비스)
- Essential 민사법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월비스)
- Fouette 민사법 종합사례연습(도서출판 월비스)
- Fouette 민사법 핵심지문 총정리(도서출판 월비스)
- 최근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도서출판 월비스)



**이재상 박사 - 형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등 특강강사
- 사법시험위원(제44회, 제45회)
-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 독일 Freiburg 대 법과대학(법학박사)

**저서**

- 로스쿨 형법(도서출판 월비스)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쓴 형법 CASE의 바이블(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 쓴 더형법(도서출판 월비스)
- 최근 3개년 형법 판례정리(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월비스)
-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 답안지 핸드북(도서출판 월비스)



**이재철 교수 - 형법, 형사소송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형사법 전임
-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고시특강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동 대학원 졸업

**저서**

- Law Man 형법 (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소송법 (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특별법(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사례 핸드북(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도서출판 월비스)



**정주형 교수 - 형사소송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 (전) 서남대학교 객원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형사법)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서**

- 형사소송법 강의안(도서출판 월비스)
- 최종정리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월비스)
- 선택형 최종정리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월비스)
- 사례형사소송법 강의안(도서출판 월비스)
- 로스쿨 최종정리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월비스)
-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선동주 교수 - 헌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
- (현) 월비스고시학원 헌법 전임
- (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헌법 전임

**저서**

- 헌법집중(도서출판 월비스)
- 5급공채 헌법집중(도서출판 월비스)
- 헌법집중 핵심암기장(도서출판 월비스)
- 헌법집중 핵심지문총정리(도서출판 월비스)
- 5급공채 헌법집중 핵심지문총정리(도서출판 월비스)
-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도서출판 월비스)
- 선동주 헌법 기출문제해설집(도서출판 월비스)
- 로스쿨 헌법 사례연습(도서출판 월비스)



**김정일 변호사 - 행정법**

**약력**

- (현) 월비스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
- (현) 법무법인 백범 구성원변호사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행정법특강 강사
- 사시 제40회 합격

**저서**

- 종합행정법총론(지공사)
- 행정작용법요론(도서출판 월비스)
- 행정구제법要論(도서출판 월비스)
- 행정법각론요론(도서출판 월비스)
- 쉽게읽는행정법(도서출판 월비스)
- Trinity 행정법 - 5급공채대비-(도서출판 월비스)
- Trinity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도서출판 월비스)

## 한림법학원 소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26년 전통의 한림법학원과 함께하십시오.

월비스 한림법학원은 **수험법학 전문학원**으로써  
**사법시험 1·2차 1등** 학원의 명성과 1등 강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대비 전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했으며,  
**변호사시험 대비 과정을 최초로 개설**하고 종합반을 최초로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수험법학 전문가, 한림법학원의 전문 강사진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최적의 강의, 검증된 교재,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 합격하십시오.

법원행시 초단기 합격, 단 하나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모집전형

- **학사기간** : 2017. 12 ~ 2018. 10.
- **모집인원** : 선착순 100명 정원제
- **모집기한** : 2017. 12. 31까지

### 개인별 심층상담

- **상담기한** : 2017. 12. 31까지
- **상담시간** : 오전11시 ~ 오후5시
- **상담신청** : 1544-1881(ARS 1)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상담내용** : 법원행시 동차합격 종합반 프로그램 안내 및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 종합반 설명회 일정 안내

- **1차 : 12/9(토) 오후 2시**
- **2차 : 12/16(토) 오후 2시**
- 단기합격을 위한 종합반 연간일정 안내 및 효과적인 학원강의 활용방법 설명

# 법원행정고등고시 간략한 안내

## 1. 응시자격

연령제한 -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학력, 경력제한 없음

## 2. 시험과목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b>법원사무직렬</b>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b>등기사무직렬</b>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영어 · 한국사는 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등록방법 · 등록일정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3. 일정 (2017년 기준)

원서접수  
 2017-06-02 ~ 2017-06-13

- 1차 < 시험 : 2017-08-26 (토)  
 합격자발표 : 2017-09-14 (목)
- 2차 < 시험 : 2017-10-27 (금) ~ 2017-10-28 (토)  
 합격자발표 : 2017-11-28 (화)
- 3차 < 시험 : 2017-12-08 (금)  
 합격자발표 : 2017-12-15 (금)

## 4. 합격자 통계

		응시인원	합격인원	컷라인
<b>1차</b> (2017년 기준)	법원사무	1,658	84	87.5
	등기사무	183	23	85.0
<b>2차</b> (2016년 기준)	법원사무	89	10	59.2
	등기사무	20	3	56.7

## 연간일정 안내



## 순환별 성격 및 활용방법

1순환	2순환	3순환
집중정리	기출해설	문제풀이
1·2차 동시 대비	1차 대비	1차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험서의 실전적 단권화 정리 과정</li> <li>- 기본이론과 리딩케이스(중요판례)의 이해를 위한 상세한 강의</li> <li>- 주1회 이상의 확인용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지문화·사려화 되어 출제되는지 확인 및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1순환에서 배운 지식의 실전적 정리</li> <li>- 출제경향 파악과 동시에 출제 예상 중요쟁점의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습 → 시험 → 복습 → 정리”의 반복을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의 정리</li> <li>-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풀이 연습</li> <li>- 틀린 문제의 해설·강평을 통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부분의 정확한 이해</li> <li>- 상세한 통계자료(문항별 정답율 분석표, 성적분포표, 전 응시인원 성적일람표 등)를 통해 전체 수강생들 중 본인의 학업성취도 확인 점검</li> </ul>



## 전문강사진이 전하는 과목별 공부방법 -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

### 1. 김남훈 변호사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I. 공통된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법원행정고등고시의 민법(객관식 포함)·민사소송법·상법·부동산등기법(이하 '민사과목'이라고 함)의 출제자 및 채점자는 법관, 서기관, 사무관 등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과목에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사례문제와 모의기록에 기초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쟁점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들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과목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는 쟁점 및 사법연수원 시험문제에서 출제된 판례에 대하여도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화된 쟁점과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과목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 II. 민법 공부방법론

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년 법행기출]

- ① 채권자취소권
- ②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1차 시험은 판례위주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기출문제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의 중요 법리를 학습해야 하고, 법원사무 직렬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의 중요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2) 2차 시험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2차 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전제로 한 판례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사무 직렬의 경우에도 민법 교과서 수준을 넘는 범위까지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 III.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민사소송법은 재판실무를 경험하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러한 과목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술형 문제가 2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의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법원사무관에게 요구되는 민사소송법의 쟁점 위주로 학습**해야 합니다. 약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 쟁점의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약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문집의 형태로 정리된 교재의 목차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들이 **단문집의 목차를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술형 시험은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IV. 상법 공부방법론

**상법은 회사법에서 50점 분량의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약술형 문제가 2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준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 위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최근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중요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2017년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지만, 당분간 출제가 계속될 수 있는 판례이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V. 부동산등기법 공부방법론

부동산등기법은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에 서술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예규와 선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약술형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의 기본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학습한 후에, 최근의 대법원 예규와 선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VI. 강의진행방향

법원행정고등고시는 합격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즉 소수의 실력있는 수험생만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평범한 공부방법으로는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2007년 겨울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의를 진행한 실무가 강사입니다. 따라서 출제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선별하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무가 강사로서, 합격에 필요한 최고의 적중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이재상 박사**

**형법**

1. 총평

법원 행정고시의 관건은 객관식 문제와 논문형 필기시험(사례 문제)을 1년 이상의 유예제도 없이 불과 2개월의 차이가 나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법행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공부방법이 법행시험에 최단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하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먼저, 형법 1차 객관식 문제는 핵심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형법조문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2차 사례 문제는 형법각론의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답안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 대비

(1) 당연히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법행 객관식 문제는 당연히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론 문제도 제35회 법행 1차에서 4개 지문이 출제되기는 하였지만, 형법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도 될 수 없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선택할 때에도 기본서의 전체 분량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분량의 판례를 수록한 교재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판례도 중요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법행, 변시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모든 기출판례에 법행, 변시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가 누적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출 표시의 누적수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바로 손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3)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판례와 결론만 암기해도 되는 판례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법행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판례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① 법행에서는 중요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대신, 판례와 이론이 모두 담겨 있는 중요쟁점에 대한 실시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핵심판례의 기본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② 반면,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례를 학습하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4) 형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법이론 문제가 불과 몇 지문밖에 출제되지 않는 대신,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3-4개 정도 출제됩니다. 지문으로는 5지 선다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0 지문 정도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부분이 잘 정리된 기본서를 고르는 것으로 손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3.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 문제) 대비****(1)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례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례 문제는 100% 사실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객관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결론만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도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의 기본취지를 2줄 정도로 압축하여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핵심내용만이 들어갑니다. 2차 시험 답안지 1장, 4쪽은 생각보다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답안지를 짧게 기술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3) 법원 행정고시 사례 문제의 출제 패턴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사시나 변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만 잘 유지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4) 사례풀이의 기본틀을 익혀야 합니다.**

사례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틀을 반드시 연습하여야 합니다. 이하 사례형문제를 푸는 방법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실관계의 분석**

사실관계의 분석은 사례해결의 출발점이다.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애매한 사실관계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서 분석한다.

② 사안에 관한 쟁점의 정리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주어진 사안에서의 쟁점을 검토할 순서에 따라 개념적으로 추출·정리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논점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여 그것만 열심히 분석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빠트려서는 안 되는 논점을 제외한다면 답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본인의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③ 사안의 체계적 검토와 쟁점에 대한 해결

범죄체계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가벌성 여부를 심사·확정해 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쟁점들을 해결한다. 위법성과 책임은 사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면 된다.

사안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여 그에 따라 범죄의 성부 내지는 그 근거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실무위주의 법원 행정고시의 특성상 학설의 소개는 아주 최소화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경우 무난한 답안이 될 수 있다.

④ 결론과 죄수관계

결론 그 자체보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증과정의 중요하므로 이를 간단히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야 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경우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4. 사례 문제와 객관식 문제는 사실 구별이 없습니다.

사례 문제는 반드시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객관식 문제 중 제일 중요한 쟁점들이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2차는 학습하는 방법론만이 다른 것이지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판례의 Leading Case의 학습은 사례 문제,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대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선동주 교수

헌법

I. 헌법공부의 특성

헌법은 정리부담이 큰 과목으로서 장악력의 형성여부에 따라 수험생 간의 점수 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수험생일수록 헌법과목에서 의외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제도적 이해를 요하는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헌법과목의 특성 때문입니다.

헌법은 한 번 정리를 잘해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효과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헌법과목에 대한 수월한 정리의 방안을 마련한 후 방대한 타 과목의 학습에 여력을 투자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헌법과목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의미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학습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체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의 비교분석적 고찰이 요청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II. 체계적 학습방법

### 1. 이해와 정리

헌법과목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은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규범구조를 헌법이념에 기초한 생성, 발전 과정으로 도해한 수형도(樹型圖)의 틀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① 헌법은 국가조직법으로서 목표조항인 기본권과 수단조항인 통치구조 및 일반이론인 헌법총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 헌법학 중 헌법총칙에 관한 헌법총론은 ‘헌법과 헌법학’, ‘대한민국헌법총설’로 구성되어 있고, ③ 이 중에서 ‘헌법과 헌법학’은 ‘헌법의 의의’, ‘헌법학 연구’, ‘헌법의 개정·개정·변천’, ‘헌법의 수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④ 이러한 주제들의 쟁점은 다시 이론·조문·판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문체계가 함께 이해됨으로써 헌법수험의 유기적·체계적 범주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르는 학문체계를 파악하면서 주제별 중요쟁점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헌법공부의 시작입니다.

한편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규범으로서 추상성을 갖고 있는 바, 그에 관한 해석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해석의 결과물 또한 다소의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 행정법 등 구체화입법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정리 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헌법수험에 있어서는 대강의 이해만으로는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이해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정리요소와 함께 적극적인 암기까지 요하는 정리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키워드의 분석정리,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등의 적극적인 정리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 선택과 집중

강의 및 교재, 공부방법 등 현존하는 다양한 수험도구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선택된 후에야 비로소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바, 자칫 자료의 홍수에 파묻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은 헌법수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선학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수험헌법의 범주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강을 권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시험이 요구하는 지식의 범주를 인식한 후 집중력을 투여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강의수강을 통해 수험교재를 실전적으로 정리한 후 당해 범주의 지식체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III. 구체적 학습방법

### 1.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

객관식 헌법시험의 대상범위에는 이론, 조문, 판례, 사례가 포괄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헌법적 관념의 출발점은 성문헌법전을 구성하는 헌법조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이며, 학자들의 무권적 해석의 결과와 통합하여 헌법이론으로 체계화됩니다. 따라서 헌법수험의 구체적 대상은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유권적·무권적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체계적 연관관계 하에서 방대할 수밖에 없는 헌법과목의 수험영역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학습이 핵심입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학습법주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2. 헌법조문 및 헌법판례 중심의 학습

우선 전문과 본문 1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헌법조문은 헌법적 논의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헌법학의 요체인 만큼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중요한 출제대상이 됩니다. 헌법조문은 헌법수험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학습 및 최종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므로 평소 기본교재 등의 학습과정에서 단원별, 주제별로 대응하여 관련된 헌법조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복수정답의 시비 등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험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객관식 시험의 포괄적인 대상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론·조문을 중심으로 확장력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성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IV.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제경향 분석

헌법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론, 조문, 판례, 사례를 묻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행시 헌법시험에서 출제가 빈번한 부분이자 정리부담이 큰 수험영역으로는 헌정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헌정사’는 우리나라 입헌정치사의 연혁적 의미 및 취지, 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적 사항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국회와 법원’ 부분은 부속법률의 정리량이 방대한 영역이지만 시사적 이슈가 결부되거나 중요판례들과 관련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부분은 헌법재판의 일반적 심판절차 및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직결되는 판례 및 관련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행시 헌법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자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최신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수록·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들은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결론 위주의 판시사항 정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경우 어렵게 고배를 마셔야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 4. 정주형 교수

## 형사소송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성격, 답안작성의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수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시는 다른 시험과 달리 답안작성이 매우 간결합니다. 답안작성이 간결하다는 것은 암기하여 준비할 양이 적다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짧은 문장 안에 핵심적 내용을 모두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부담 또한 있습니다.

법원행시의 답안은 근거법령과 판례를 서술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단지,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판례가 제시하는 근거를 정확히 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안작성이 간결하다는 점만을 강조한다면, 얇은 요약서를 바탕으로 암기위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근거법령, 핵심근거,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달리, 기득권이 없이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을 동시에 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인정하는 시험형태(1차합격후 2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에서는 객관식 시험 이후 2~3개월 주관식을 대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득권을 가지고 1년이상 주관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합격률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득권이 없이 1차시험과 2차시험을 연이어 치른다면, 수험기간이 몇년이나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 이후 약 7~80일만의 준비로 2차대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할 때, 1년의 시간을 얼마나 짜임새있게 보내느냐가 합격의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관식 기본강의를 통해,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교재를 정리한 다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한 다음, 1차 시험 이후 기존에 정리된 교재를 바탕으로 예상문제풀이에 주력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최적의 대비책이라 할 것입니다.

1순환 강의에서 암기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정리가 핵심입니다. 암기해봤자 암기후 상당기간을 객관식 시험준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순환 주관식 강의는 철저한 이해와 교재의 정리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 5. 김정일 변호사

행정법

### I. 들어가며

행정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입니다. 실제 법률 중 민법, 상법, 형법, ~ 처벌에 관한 법률, ~ 소송법, ~ 조직법 등의 이름을 가진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거의 행정법으로 보면 될 정도로 행정법은 방대합니다(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득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 방대한 행정법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공부하는 것이 행정법이라는 법과목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해보면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민사법처럼 완벽한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해하기 힘듭니다.

### II. 체계적인 학습방법

#### 1. 이해중심의 공부

다른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극도의 논리정체성을 지닌 수학과 유사한 학문입니다. 마치 수학공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어려운 응용문제를 풀 수 있듯 행정법도 고유한 논리체계를 이해하여야만 어려운 응용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암기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 전체를 암기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행정법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몇 가지 공식을 이해한 후 그 논리체계 내에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들면서도 의외의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2. 교재선택 및 속독

행정법 교재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양입니다. 양이 너무 많은 교재는 속독하는데 힘들 뿐만 아니라 투자시간대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양이 많고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 교재를 추천하겠습니다만 다른 법과목에 투자하여야 할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중요판례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양이 적은 교재를 선택하여 속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한번 선택한 교재는 중간에 바꾸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는 다른 법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속독은 필수입니다. 강의를 통해 한번 이해하고 난 후 교재를 짧은 시간 내에 속독을 하면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다 파악하고 암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 III. 구체적인 학습방법

최근 7년간 법원행시,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 행정법문제는 대부분 사례문제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와 달리 분설형 문제로 나옵니다. 분설형 문제란 이미 문제에서 대략적인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컨대 '위 사안에서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가?'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설형 문제는 논점 파악이 쉽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수험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 둘째 답안작성방법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설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침해론 논거로 들고 긍정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내용을 암기해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과 '행정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였다면 것은 행정청이 허가라는 처분을 안하겠다는 판단권을 1차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을 맡은 법원이 이러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행사에 대하여 복잡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적 소송인 항고소송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고 법원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대신 행사한 것이 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답안작성을 하는 것은 엄청난 점수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2차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행정법의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여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제3자인 재단법인이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 충족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선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답안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포섭에서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가 재단법인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답안지와 '사안에서 재단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바 환경상 피해를 입을 수 없다. 즉, 재단법인이 소음이나 진동,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원고인 재단법인이 침해받은 이익, 또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 없는 바 재단법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답안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출제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후자 답안지에 대하여 고득점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될 분설형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답안지에 현출시키는 부분인 검토와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차합격 종합반을 위한 특별한 혜택

**선착순 30명**  
직영독서실 2+2혜택  
(2개월 입실료 선납시 4개월 사용)

## 1. 모든 강의에 종합반 최우선 배정

- 종합반 우선 배정 후에 단과 수강생의 접수를 진행함으로써 마감 걱정 없는 안정적인 수험계획 수립 가능

## 2. 종합반 정규과정 전강좌 전교재 무료제공

- 종합반 커리큘럼에 포함된 모든 정규순환 강의의 주·부교재 제공 (월비스 출판사 출간 교재에 한함)

## 3. 수강한 모든 강의에 대한 복습용 동영상강의 무료제공

- 실강으로 수강한 강사의 강의에 한해 복습동영상 무료 제공 (강의당 1회에 한함)

## 4. 파격적인 수강료 할인

- 단과 수강료 대비 약 40% 할인 혜택
- 정규과정 외 특강 수강시 40% 할인혜택 제공 (실강에 한함)

## 5. 직영 독서실 할인혜택

- 2018년 법원행시 3차 시험일 전까지 직영 독서실(금탑 독서실) 할인 혜택 제공 (월 7만원)

## 6. 전문강사진과의 상시 질의응답

- 법학전문 강사진을 개인 멘토로 활용

www.haningsosi.co.kr

# 1·2차 대비 집중정리 강의 시간표

과목	강사	시간	일정	회차	교재
민법 (1·2차 동시대비)	김남훈 변호사	오전	12/18(월) ~ 1/18(목) 월~토 강의	28	민법원론(지원림 저)
	이태섭 교수	오후			민법정론(저자) + 각자 법전
형법 (1·2차 동시대비)	이재상 박사	오후	1/19(금) ~ 2/14(수) 월~토 강의	23	로스쿨 형법(저자, 2018년 전면개정판)
	이재철 교수	오후			Law Man 형법 핵심정리(저자, 근간, 제공)
헌법	선동주 교수	오전	2/19(월) ~ 3/13(화) 월~토 강의	20	헌법집중(저자, 4판, 근간)
민사소송법	김남훈 변호사	오전	3/14(수) ~ 4/3(화) 월~토 강의	18	Essential 민사소송법(저자, 근간)
형사소송법	정주형 교수	오전	4/4(수) ~ 4/24(화) 월~토 강의	18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저자)
	이재철 교수	오후			Law Man 형사소송법 (저자, 제공)
상법 (등기직)	김남훈 변호사	오전	4/4(수) ~ 4/17(화) 월~토 강의	12	Essential 상법(저자, 근간)
부동산등기법 (등기직)	김남훈 변호사	오전	4/18(수) ~ 4/24(화) 월~토 강의 ※ 2회 연강(별도공제)	8	Essential 부동산등기법(저자, 근간)
행정법	김정일 변호사	오후	4/25(수) ~ 5/15(화) 오후 1:40 ~ 5:20 월~토 강의	18	트리니티 행정법 총론·각론(저자, 근간) + 행정법 핵심암기장(자료, 제공) + 중요사례자료(제공)

강의시간

오전강의 - 오전 9:00~12:30 / 오후강의 - 오후 2:00~5:30 / 저녁강의 - 저녁 7:00~10:30

※ 강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강의계획서를 꼭 참고하세요

수강특전

- ① 3과목 이상 동시 수강신청시 10%할인
- ② 6과목 이상 동시 수강신청시 20%할인
- ③ 5인 이상 단체접수시 5% 추가할인
- ④ 신림동 연계독서실 5%할인(할인혜택 ①,②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2018년 법원행정고시 대비

# HLS

법학교육의 名家  
한림법학원이 제대로 시작합니다.

[www.hanlimgosi.co.kr](http://www.hanlimgosi.co.kr)